◇김지하 시인

‘절, 그 언저리’

김지하 지음

창작과 비평사 / 2만원

어제쯤은 어떤가
축제 치나는 산
진리 버무는 절에 가서
입정
참선함이 또한 어떠할꼬?
할! (‘축제 치나는 산, 진리 버무는 절’ 중)

시인이 쓴 불교인연 수묵시화첩

“시인은 소각(小覺)을 해야하는데 대각(大覺)을 하니 시상이 막혔다.”

지난해 화엄 연기의 세계관을 담은 시집 <화개(花開)>를 낼 때까지 시작(詩作)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던 김지하(62) 시인. 저항시인이자 생명운동가, 동양사상가로서 누구보다 선(禪)에 대한 문학적, 수행적 관심을 쏟아내 온 그가 산사 순례시를 통해 또다시 선기(禪機)를 드러냈다.

김지하 시인의 불교 인연을 더욱 곱씹게 하는 수묵시화첩 <절, 그 언저리>(창작과 비평사刊). 김씨는 이 책에서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딸이자 불교미술사학자인 부인 김영주 원주토지문화관장과 함께 2년 여에 걸쳐 전국의 절을 순례하며 지은 시 32편을 달마, 매화, 난초를 주제로 한 수묵화를 붙여 시화첩을 내놓았다.

이미 몇 차례 수묵화 전시회를 통해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였던 그는 선암사, 금산사, 화엄사, 내소사, 운주사, 쌍계사, 백양사, 구룡사 등을 방문해 절에 깃든 선사들의 자취를 좇고 그들과 정신적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시를 지었다.

“아아 아득한 天台까지 이어온/ 구슬픈 仙史를 알겠구나/ 텅 비인/ 山神의 자리…”(‘산신각’ 중) 처럼 불(佛)과 선(仙)을 결합한 시편이 주류를 이룬다.“

김 시인은 ‘추(醜)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서문

부인과 사찰 돌며 시 32편

달마 · 난초 · 매화 그림 함께

에 “(전작 시집)<화개(花開)>의 애잔함과 슬픔을 넘어 선적 생명의 숭고함에로, 모순어법의 섬광과 촌철살인을 넘어 불적인 영성의 심오함에로 나아가고자 했다”고 작품경향을 밝혔다. 산사 순례에 나선 이유는 그러나 단순했다.

“신경이 어수선하고 몸이 피로해서 1달에 1번 정도 아내와 산사를 찾았어요. 뛰어난 절경과 신선한 공기도 좋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류를 고스란히 전해준 스님들이 여간 감사하지 않았지요.”

어릴적 큰 화주 보살이었던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사를 오르내렸던 그는, 감옥에 있을 때는 100일간 참선하면서 선사들의 게송을 250수나 외웠을 정도로 불연을 쌓았다.

유신 말기, 그가 독방에 수감됐을 때다. 천장이 내려 앉고 사방 벽이 좁혀 들어오는 ‘면벽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창틈으로 날아 들어온 하얀 민들레씨, 그리고 벽돌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린 개가죽나무를 보는 순간 까닭 모를 울음이 터진다. 동시에 저 무소부재한 생명의 이치만 터득하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자유자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선을 시작한다. 그리고 눕지 않고 좌선한 지 100일 만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참선이 끝난 뒤로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은 평지가 됐다.

“유불선과 민족종교를 모두 사랑하는 동양사상가로서 불교를 만끽하는데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그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절만이 칠성각과 산신각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선도(仙道)사상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화 투쟁시절 알게 된 지선 스님과 생명운동을 함께 펼친 수경 · 도법 스님을 존경한다면서 불교의 생명 · 평화 사상은 인류문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회고록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회고록 제목의 가제는 ‘모로 누운 돌부처’다. 시인은 “나에게 ‘구도’라는 말이 허용된다면, 그 길을 따라 평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무의식세계서 방황하는 우리 자화상

스님들이 동안거와 하안거 사이에 속세로 나아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베풀고 가르치며 배우는 ‘만행(萬行)’. 스님들은 속세에서 매순간 성지 순례하는 심경으로 나아간다. 일반인들의 삶 또한 만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들의 만행은 무의식의 여행이란 특징을 갖는다.

<물고기 남자 1, 2>(권병두-강승귀 글, 이중삼 그림)는 만행을 일삼는 인간의 무의식을 우화 형식으로 풀어낸 글이다. 삶의 비밀이 담겨있고 생명의 원형이 바탕에 깔려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외로워하며 울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물고기 남자’이다. 머리는 인간이지만 몸뚱이는 물고기인 ‘괴물’이 곧 자신의 모습이다.

‘물고기 남자 1, 2’

권병두 외 지음

꼭사요 / 각 9천원

지은이는 40대 샐러리맨이 ‘살아있는 화석 물고기’ 실러캔스로 변하는 돌연한 사태를 제시한다. 그렇게 변해 있는 사내에게 실러캔스 예언자가 접근한다. 그는 모르쇠로 점철된 세상을 보여 주며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치유받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인도를 찾아가라고 말한다. 무인도에 닿기 위해서는 4개의 섬을 거쳐야 한다. 그 섬들은 쾌락 망각 환상 회의 등 인간의 욕망이 변형되어 땅을 이루고 숲을 이루어 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곳이다.

물고기 남자가 찾고자 하는 무인도는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물고기 인간이 닿은 곳은 바로 ‘현재 이곳’이다. 숭고한 깨달음과 번잡한 욕망이 결국 하나라는 이야기는 일상에서 지금의 고통과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겠다.

김재경 기자

전문가 서평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

김용남 지음

운주사 / 1만원

불교적 입장서 성리학 조명

한자문화권인 동북아 지역에서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敎)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교(巫敎)와 함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 사상이다. 그러므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삼교에 대한 회통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음은 익히 아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이 김용남의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저자는 자신의 책머리에서 유학을 전공하는 불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또다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때 출가를 결심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는 저자가 유학을 공부했다는 점은 불교 이해가 선행된 학자가 어떻게 유교, 특히 성리학을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 저서는 저자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성균관대 유학과), <이고(李翺)의 복성론(復性論)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쓴 책이다. 이고는 당(唐)나라 말기의 학자로서 그의 <복성서(復性書)>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를 회통하려 했던 최초의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복성서’ ‘대승기신론’ 하나하나 비교분석

요약하면, 불교와 유교의 만남은 성불론(成佛論)이 성성론(成聖論)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유교와 도교의 만남은 ‘역(易)’의 사유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복성론의 성(性)은 불교의 불성(佛性), 도교의 자연(自然)과 통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복성’은 곧 불교에서의 ‘성불’이며, 도교에서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복성서>와 <대승기신론>을 하나하나 비교분석해 내고 있는 것은 물론 도교 및 현대 정신물리학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동양 사상의 심오한 경지에로까지 독자를 초대하기도 한다.

저자의 주장 가운데 성리학의 비조(鼻祖)에 관한 문제는 전체 논지를 통해 충분히 재고해 볼만한 가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학계에서는 주렴계(周濂溪)를 꼽는 것에 반해 저자는 이고를 내세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즉, 주자(朱子)가 말한 것처럼, 주렴계의 대표적인 저술인 <태극도설>은 그의 저서 <통서>와 표리관계라 할 수 있는데, <통서>는 이고의 <복성서>와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거나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 점이 이고의 <복성서>가 주렴계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고를 성리학의 태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자에 의하여 비판되고, 그 이후로도 유학사(儒學史)에서 기피된 것은 그의 사상에 강하게 배어있는 도교 및 불교적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고의 사상 속에는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그것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부흥시킬 목적으로 불교의 해탈론적 체계를 토대로 하여 <복성서>를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결국 불교와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성리학이 종교성을 띠게 되는 것 또한 불교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복성서>가 곧바로 불교의 학설로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유교 내에 잠자고 있던 내용을 끄집어내어 새롭게 구성한 것이기에 <복성서>는 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봄으로써 이고를 통한 불교와 유학의 교섭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이고가 성리학의 태두라는 말은 불교 없이는 성리학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성리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서는 우선 불교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말은 이고를 배제한 성리학의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불교를 배제한 성리학의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불어 저자는 오늘날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진 것은 이고의 사상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고의 복성론이 중국사상사에서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유불도 삼교를 유교적 입장에서 정리한 가장 본격적인 첫 만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시 혼란했던 시대의 대안사상으로, 훗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이끌어내게 하는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은 불교적 입장에서 이고의 저서를 다시 검토해 보게 하는 것으로써, 성리학의 기원과 관련한 불교의 위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준호 /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성리학, 유불도의 만남>은 성리학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이고의 복성론을 중심으로 ‘전체로 되돌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고의 복성사상과 불교의 체계를 비교한 내용으로 관련 학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